



브리검 영(왼쪽)을 포함하여 형제들을 가르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 브리검 영은 선지자가 “경전을 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구주의 비유에 나타나는 진리

“왕국의 수레바퀴는 여호와의 강력한 팔에 의해
여전히 앞을 향해 구르고 있으며,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를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키틀랜드 성전 공사가 완성되어 갈 무렵, 조셉 스미스와 성도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받게 될 커다란 축복을 위해 자신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형제들이 성전 헌납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장로 학교의 학기가 1835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이전에 운영되었던 선지자 학교에 이어, 1834년에 설립되었다.

다른 과목들과 함께, 조셉 스미스와 다른 형제들은 대부분의 구약전서에 사용된 원어인 히브리어를 공부했다. 이 기간 동안 기록한 선지자의 일지를 보면 그는 거의 매일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며, 종종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공부하곤 했다. 일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하루를 보냈다.” 혹은 “학교에 참석하여 히브리어를 읽었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¹ 1836년 1월 19일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학교에서 하루를 보냈다. 주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축복해 주셨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매우 성공적이었다. 마치 주님께서 원어로 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듯했다.”²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학교에 참석하여 평소처럼 읽고 번역했다. 주님의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서 내 영혼은 기쁨을 느꼈다.”³

조셉 스미스가 장로 학교에서 경험한 것은 경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는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했으며, 경전에서 평생토록 위안과 지식과 영감을 찾았다. 중요한 사실은 조셉 스미스가 성경의 한 구절때문에 14세였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첫번째 시현을 보았다는 점이다.(야고보서 1:5 참조)

선지자의 기록과 설교는 경전의 인용과 해석으로 가득하다. 왜냐하면, 그가 경전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공부한 결과 경전은 그의 사고에서 떼낼 수 없는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르칠 때 경전을 직접 인용하고 언급했으며, 다른 말로 설명하고 설교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했다. 1844년 4월, 조셉 스미스는 “저는 경전을 알고 이해합니다.”라고 말했다.⁴

그는 탁월한 경전 지식으로 인해 큰 권능으로 명료하게 경전을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었으며,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을 기억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선지자가 “경전을 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⁵

웬들 메이스는 이렇게 회고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대중 앞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해가 뜨거나 비가 오거나 연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과 그의 집에서 저는 그분과 가까워졌으며, ...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경전을 것처럼 잘 설명하고,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참으로 분명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전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명할 때면 그토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열쇠를 돌려 지식의 문을 활짝 열고, 오래된 혹은 새로운 값진 원리들을 밝혀 내는 듯했습니다.”⁶

경전에 대한 선지자의 지식은 다음 편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 편지에서 그는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구주의 비유에 대해 선지자적인 해석을 해주었다. 그는 이 비유들이 구주의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설립과 후기의 놀라운 성장과 운명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구주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은 더 큰 빛을 얻는 반면,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이 받았던 빛마저도
잃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구주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저는 이 질문에서 사용한 “그들에게”란 … 군중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마태복음 13:10~12)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선지자들의 증언에 따라 오실 메시아를 이전부터 고대했으며 당시 메시아를 찾고 있었지만 그가 그들의 구주임을 알기에는 믿음이 부족하여 충분한 빛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가 참된 메시아였으므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 주제에 대해 그들이 가졌던 모든 지식마저 잃거나 그에 대한 모든 빛, 이해, 신앙을 잃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빛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된다면, 그 어둠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3:13~14)

“이제 우리는 이 선지자[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해하거나 알려 하지 않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마태복음 13:15)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

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태복음 13:16~17)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을 받도록 해 준 바로 그 원리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에게 저주가 임했던 원인은 그들이 기꺼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없었거나 그럴 특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죄와 가증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사도행전 7:51)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하리라는 것을 미리 본 선지자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즉, 세상이 정죄받은 까닭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 점을 참으로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경전을 가בע계 읽고 지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가르칠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명확하며 비유로 되어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만큼 눈먼 사람들도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참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셨으니, 만일 우리가 눈을 뜨고 잠시 편견 없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바알의 제사장들의 노력과 영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하거나 우리의 이해력을 둔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⁷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 전파의 결과들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구주께서 절정의 시기에 그분의 왕국을 설립했음을 보여준다.

“구주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수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말씀과 비유를 말씀 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드는 무리 때문에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씩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3~9)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누구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는 표현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마태복음 13:9) 마음속에 의의 원리가 없고,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리의 원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마가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마태복음 13:20~23)

“이와 같이 구주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어둠을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경청하던 당시의 무리, 혹은 구주께서 지칭하신 것처럼, 세상이, 그분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11 참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에 대해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말씀의 전파로 초래되는 효과를 명시하기 위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비유가 그 당시에 왕국의 도래 곧 시작을 직접 암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 왕국에 대한 그분의 모든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고] ...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결실을 하였느니라.”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즉 의로운 자들은
거두어지고 악한 자들은 불타게 될 때까지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자라날 것이라고 가르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 비유는 그 시대에도 왕국이 세워졌음을 암시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

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태복음 13:24~30)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결실을 맺은 좋은 씨에 비유된 구주 시대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라지에 비유되고 원수가 심었으며 구주께서 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셨다면, 그들이 기꺼이 뽑아 버리자고 했던, 즉 교회에서 없애버리고자 한,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께서 너희의 소견은 정확하지 않으며 교회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이같이 성급한 조치를 취하면 가라지와 더불어 알곡, 즉 교회까지 망칠 수도 있으니 추수 때까지, 즉 세상의 종말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악인의 멸망을 뜻하며,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

“...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마태복음 13:36~38)

“읽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밭은 세상이요 ...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특히 세상 끝이라는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마태복음 13:38~39)

“누구도 이 말씀이 상징적이라고 하거나 말씀의 내용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세상의 끝은 악인이 멸망하는 때이며, 추수와 세상의 끝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지구가 아닌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리고 추수꾼으로서, 천사들이 이 위대한 사업에서 일익을 담당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마태복음 13:40) 즉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 나라에 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일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우선적으로 사탄의 매질에 넘겨질 자들이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봉해진 자들로서, … 그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며, 불타는 날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처럼 그들은 자신의 신조에 의해 결박되고, 그 결박은 제사장들로 인해 단단해지고, 그들은 구주의 다음 말씀을 이루게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마태복음 13:41~42)

“우리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는 일이 가라지를 모아 묶어서 불태울 준비를 할 때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불 태우는 날이 있는 후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태복음 13:43)”⁹

겨자씨의 비유는 이 마지막 날에 설립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리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분은 또다시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 혹은 추수 때에 세워져야 할 왕국에 대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태복음 13:31~32) 이제 우리는 이 비유가 후기에 세워질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것에 비유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뭇몬경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이것을 취하여 자기 발에 감추고 마지막 날, 곧 때가 이르는 날에 싹이 나게 했습니다. 정말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땅에서 나와서, 가지가 높게 뻗어 하나님과 같은 위엄

을 지니고 거대하게 되어,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 모든 식물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지켜봅시다. 물론경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솟아났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으며(시편 85:11; 모세서 7:62 참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은사와 천사를 내려 보내시어 그 나뭇가지에 깃들이게 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서 머리를 들고 있는 천국, 즉 참으로 깊은 곳 속에서도, 사탄의 거센 폭풍과 풍랑에도 휘말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바위와 같이 아직도 굳건히 남아 있으며, 승리의 모습을 하고 어마어마한 거품을 일으키면서 밀려왔고 지금도 밀려오고 있는, 배를 침몰시킬 만한 사나운 바람과 거대한 반대의 파도에도 용감히 맞서고, 의의 원수들의 증폭된 분노에 대항하여 전진을 촉구하는 후기 성도의 교회가 아닙니까?

“어둠의 구름은 오랫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후기 성도 교회의 요지부동의 반석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는 여전히 높이 자란 가지들을 더 높이 뻗고 있으며, 점점 더 가지를 옆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왕국의 수레 바퀴는 여호와의 강력한 팔에 의해 여전히 앞을 향해 구르고 있으며,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수레바퀴는 그분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를 것입니다.”¹⁰

**세 증인의 증언과 후기의 경전은 가루 속에 감추어진 누룩과 같다.
그물의 비유는 전 세계적인 집합에 대해 가르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마태복음 13:33) 이 말씀은 후기 성도 교회가 단 세 사람의 증인에게 넣어진 작은 누룩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유와 일치하는 사실입니까! 이 누룩은 조그만 부분부터 시작하여 곧 전부를 부풀릴 것입니다. …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



교회는 “참으로 깊은 곳 속에서도, 사탄의 거센 폭풍과 풍랑에도 휘말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바위와 같이 아직도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라.’(마태복음 13:47~48)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요셉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준비한 그릇에 담겨지고 나쁜 것들은 천사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마태복음 13:49~51) 우리가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마지막 날의 모든 성도들은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마태복음 13:52)

“경전에서 이 예에 대한 것을 찾아보자면, 마음의 보배에서 나오는 물몬경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후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약들[교리와 성약], 또한 성경의 번역이 곧 마음의 공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 오는 일ियो,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순화되고 있는 가루 서 말에 대한 응답이요, 천사의 성역이니, 이들은 이미 마지막 날에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며, 그것은 반죽을 모두 부풀게 한 누룩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¹¹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293~294쪽을 복습한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통해 우리 자신의 경전 공부를 도와주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 때때로 구주께서 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지에 대해 조셉 스미스가 설명한 부분을 복습한다.(295~296쪽)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배울 때,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우리가 기꺼이 더 큰 빛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경우 어째서 있는 빛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더 많은 복음의 빛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부한다.(275~278쪽) 이 비유에서 구주께서는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째서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환란과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가? 어떤 면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시들게 할 수 있는가?
- 우리는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어떻게 우리의 “땅”이 좋게 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299~301쪽), 밀은 의로운 사람들, 혹은 “천국의 아들들”을 나타낸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나타낸다.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충실하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86편 1~7절은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겨자씨의 비유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은가?(몇 가지 예를 위해 301~302쪽을 참조한다.)
- 302~303쪽을 검토한다. 누룩은 빵 반죽을 부풀어오르게 하는 물질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후기 성도 경전은 어떤 면에서 교회를 위한 누룩과도 같은가? 경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누룩과 같은가? 후기의 경전은 어떤 면에서 “새 것과 옛 것”의 보화와 같은가?
- 복음 그물의 비유에서(303쪽), 그물이 각종 고기를 모으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이 비유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관련 성구: 누가복음 8:4~18; 앨마서 12:9~11; 교리와 성약 86:1~11; 101:63~68

주

1. *History of the Church*, 2:326, 387;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5년 12월 7일 및 1836년 1월 29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2. *History of the Church*, 2:376;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6년 1월 19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3. *History of the Church*, 2:396;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6년 2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4. *History of the Church*, 6:314; 1844년 4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 윌라드 리차즈, 토머스 볼릭,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5. 브리검 영, *Deseret News*, 1857년 12월 30일, 340쪽; 현대화된 철자법.
6. 윈들 메이스, 자서전, 약 1890년 경, 45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7. *History of the Church*, 2:265~266; 둘째, 셋째, 넷째 괄호 안의 말은 원문 첫째 단락에 있음; 현대화된 구두법 및 문법; 조셉 스미스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5년 12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5년 12월, 225~226쪽.
8. *History of the Church*, 2:264~267; 현대화된 구두법 및 문법;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5년 12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5년 12월, 225~226쪽.

9. *History of the Church*, 2:267, 271; 첫째 단락 첫째 괄호 안의 말은 원본에 있으며, 넷째 단락 첫째 괄호 안의 말은 원문에 있음; 현대화된 구두법 및 대문자 표기법;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5년 12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5년 12월, 226~229쪽.
10. *History of the Church*, 2:268, 270; 셋째 단락에 있는 괄호 안의 말은 원문에 있음; 현대화된 구두법, 대문자 표기법 및 문법; 조셉 스미스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5년 12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5년 12월, 227~228쪽, 교회 공식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은 xvi쪽 참조.
11. *History of the Church*, 2:270, 272; 현대화된 구두법 및 대문자 표기법;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5년 12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5년 12월, 228~229쪽.